

# 양강 이재명·이낙연, 네거티브전 격화... '원팀 경선' 깨지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과 이낙연 전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접전 양상을 보이며 양강 구도를 형성하자 양측 간 네거티브 공방전이 한층 가열되는 모양새다. 양측 간 감정 싸움이 심화하면서 대선주자들이 대선 본선을 감안해 다짐했던 '원팀 경선'이 깨질 상황에 놓였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

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 25.4%, 이 전 대표 19.3%로 조사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6.1%p로 오차범위(±3.1%p)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다. 매주 진행되는 이 조사에서 두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주자간 지지율 변동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공방전은 더욱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이 지사

## 이재명 "5·18 학살 옹호", '굵은 팔' 공개로 역공 이낙연 "단독방 가짜뉴스 불법 선거운동" 공세 지지율 격차 오차범위 내로...공방전 격화 전망

는 경쟁주자들의 '위 패러기'로 이 전 대표 지지율이 상승하자 '김빠진 사이드'에서 '공세적 방어' 기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은 지난 주말에도 전두환·박정희 찬양 주장, '군필 원팀' 홍보물 논란, 경기도 산하기관 임원의 '비방 단체인' 운영 의혹 등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5·18 학살을 옹호하던 사람도 있다. 박정희를 찬양하던 분도 계시지 않느냐"며 이 전 대표를 직격했다. 이 전 대표가 동아일보 기자 시절 전두환 옹호 칼럼을 쓰고 전남지사 때 박정희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는 의혹을 꺼내들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이 전 대표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두환 찬양 논란에 대해 "당시 민정당 권익현 사무총장의 발언을 따옴표로 인용해 기사로 쓴 것을 왜곡한 허위 날조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2017년 기념사업회가 광화문에 동상 건립을 추진하며 우상화 움직임을 보이자 유감을 표하며 참여를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자신을 겨냥한 '굵은 팔' 논란에 굵은 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지사를 제외한 4명의 남성 후보가 담긴 포스터가 인터넷상에서 확산하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걸로 제가 병역을 고의적으로 면탈한 것처럼 말씀하면 서글프

다"며 "없는 사실을 음해, 왜곡하는 것은 마타도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의 공방전은 경기도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방 단체인' 운영 의혹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한 언론은 경기도 산하기관 임원 진모씨가 '이재명 SNS 봉사팀'이라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이 전 대표를 공격하는 내용을 담은 '대응 자료'를 공유하며 온라인상에서 '총공격'을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사 측이 해당 인물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 전 대표 측은 경기도 차원의 조직적 여론 조작이라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이 전 대표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광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성남FC 직원으로 재직했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캠프에 참여했으며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에 임명됐다"며 "이 지사와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미뤄서 짐작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공직자는 아니지만 자중해야 하는 사람이 선거에 개입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캠프 차원의 여론 조작설에 선을 그었다.

네거티브 공방전이 캠프 간 정면충돌로 비화되면서 '원팀 경선' 기조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선관위 회의에서 "후보 간에 상호 비방 또는 난타전이라고 할 정도로 금도를 벗어나고, 선거법에도 위반될 수 있는 행위들이 벌어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당에 정해진 선거 규범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페어플레이는 물론이고 나이스플레이도 해야 한다"며 "(위반 행위는) 선관위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경중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윤석열 30.3% 이재명 25.4%...이낙연·최재형 '약진'

이낙연, 3주 연속 상승...이재명과 '오차 내' 격차  
'국힘 입당' 최재형, 더불어민주당 상승...4위 안착

여야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 지사가 선두권인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3주 연속 상승세를 달리며 2위 이재명 지사와 오차범위내로 근접했고, 지난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원장도 직전 조사 대비 더블스코어로 뛰어오르며 4위에 안착했다.

19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6~1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 30.3%, 이 지사 25.4%, 이 전 대표

19.3%로 조사됐다. 이어 최 전 원장 5.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3.4%, 홍준표 국민 의힘 의원 3.3%, 유승민 전 의원 2.3%,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2%, 심상정 정의당 의원 1.2%, 박용진 민주당 의원 0.9%순이었다. '기타 후보'는 1.1%, '없음' 3.3%, '잘 모름'은 1.6%였다.

지난주 조사 대비 윤 전 총장은 0.4%포인트, 이 전 대표는 1.2%포인트 오른 반면, 이 지사는 1.5%포인트, 추 전 장관은 0.8%포인트 하락했다. 최 전 원장은 전주 대비 3.1%포인트 상승했다.

이 전 대표의 경우 지난 6월 말 조사 이후 3주 연속 상승하며 이 지사와의 격차를 6.1%포인트로 좁혔다.

또한 지지 후보의 가족이나 친인척, 측근에게 도덕적·사법적 문제가 드러날 경우 지지를 바꿀 의향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후보 본인의 문제가 아니니 철회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7.4%로 나타났다.

이어 "지지 의사가 흔들릴 것 같다"는 응답이 24.6%, "문제가 없는 다른 후보로 바꾸겠다"는 응답이 15.1%로 답해 지지 후보를 교체할 의향이 있는 응답은 48.6%로 팽팽했다. "지지는 철회하지만 다른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8.9%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3%, 민주당 33.7%, 열린민주당 7.1%, 국민의당 6.9%, 정의당 3.7%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3.3%, 지지 정당 없음은 9.8%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국민의힘은 1.5%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2.6% 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김두관, 윤석열 방문 5·18묘지 손수건으로 닦아 '흔적지우기'

"尹조직, 광주시민 폭도로 매도...무릎꿇고 사죄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윤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김태홍 전 의원 묘비를 손수건으로 닦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19일 야권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5·18민주묘지 방문 기록 지우기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립5·18민주

묘지를 참배한 뒤 윤 전 총장이 손으로 만졌던 묘비면의 윤석열의 묘비를 손수건으로 닦았다. 또 고(故) 김태홍 의원 묘비를 찾아 묵념한 뒤 똑같은 방식으로 윤 전 총장의 흔적을 지웠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더럽힌 비석을 닦아 드려야겠다는 심정으로 손수건으로 비석을 닦았다"고 의미를 전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광주시민들을 폭도, 빨갱이로 몰았다"며 "희생자들 앞에서 쇼를 할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5·18민주묘지는 한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곳이다"며 "김대중 정부의 탄생,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내는데 민주화 운동이 미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를 광주민주화항쟁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민주주의 성지이자 메카이기 때문에 민주묘지를 방문할 때마다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는 곳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선욱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